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Public Library Cooperation in Incheon

강 속 희(Sook-Hee Kang)*

< 목 차 >

I. 서론	III.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현황분석
1. 연구의 의의	1.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현황
2. 선행연구	2.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현황
II. 국내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현황 및 해외 사례	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개선방안
1.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정책	IV. 결 론
2. 국립중앙도서관 협력망 사업 현황	
3. 전국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현황	
4. 해외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사례	

초 록

본 논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망 사업과 전국 공공도서관의 상호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일반 현황과 협력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범위의 확대라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상호협력업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상호협력업무의 개선 방안으로는 ① 상호협력의 기반으로서 단위공공도서관의 인프라 강화, ② 지역대표도서관의 위상 강화 및 도서관정책수립 기구의 실효성 있는 운영, ③ 운영주체의 다원화 극복 및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④ 거점도서관의 지정 운영, 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공공도서관 특성화의 추진, ⑥ 기존의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의 개선 및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도서관 상호협력, 자원공유, 인천광역시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library cooper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regional public libraries in Korea, and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and cooperation program of public libraries in Inche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d some directions to improve cooperation among public libraries in Incheon as follows: to strengthen infrastructure of local public libraries; to build up the position of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y and set up effective management of library policy organization authorities; to resolve the problems derived from multiple administrations and harmonize communications among public libraries; to appoint and administer strongpoint libraries; to specialize local libraries concerning characteristics; to expand and improve the existing library cooperative programs such as shared purchasing, interlibrary loan, preservation, cooperation with small libraries etc.

Keywords: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Cooperation, Library Cooperation, Resource Sharing, Incheon

*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hkang@mail.incheon.ac.kr)

• 접수일: 2010년 8월 10일 • 초심사일: 2010년 9월 13일 • 최종심사일: 2010년 9월 27일

I. 서론

1. 연구의 의의

공공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예산 및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공유의 일환으로 도서관 협력활동을 추진해왔으나 도서관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로 도서관 협력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전국 및 지역 단위의 공공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서관법』의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도서관발전 종합계획과 그를 기초로 한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도서관 발전계획은 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과 상호협력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으로 인하여 작은도서관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지역사회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도서관상호대차 및 통합대출서비스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 등 특수도서관까지 공공도서관의 개념에 포함되는 등 국내 공공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및 신설 공공도서관을 포함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망 사업과 전국 공공도서관의 상호협력 현황을 살펴 보고,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협력서비스의 실태와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협력서비스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정책 수립 및 협력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도서관협력이란 도서관간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도서관협력망을 구축하여 도서관자원을 상호교환하거나 공동 활용함으로써 도서관과 이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도서관간의 분담수서, 종합목록의 작성, 상호대차, 서지정보의 교환, 공동보존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간의 문화프로그램협력 및 공동홍보 분야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협력서비스 현황분석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1997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는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 중 2005년부터 2009년 발행자료, 『한국도서관연감』,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등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인구통계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통계자료를 통하여 입수할 수 없는 데이터는 공공도서관 실무자 및 시, 시교육청의 도서관 정책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2. 선행연구

2006년 도서관법 개정을 전후하여 지역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안 에 관한 연구¹⁾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상 지역은 서로 다르나 연구방법은 유사한 연구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상호협력업무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시행한 「통합대출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협력 방안 연구」²⁾는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통하여 통합대출서비스의 현황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통합대출서비스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정책기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주무기관으로 한 통합대출서비스의 전국적인 확대실시 5개년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상복 등³⁾은 도서관 협력체계에 관한 이론 분석, 국내외 도서관 협력체계 현황분석, 전문가의 견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모형 및 지역단위 협력체계의 기본방향, 관련된 법·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남영준 등⁴⁾은 2007년도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협력업무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공공도서관 협력망의 발전적 모델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공공도서관 협력망의 기본 방향으로 협력망 운영방식을 참여협력형으로 확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이 용이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으로 협력사업 기반을 조성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배순자⁵⁾는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을 기본적 기능과 부차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의 효율적 역할을 위한 협력체제로 혼합형모형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으로 도서관정보화사업 지원, 공동보존, 사서교육의 지역화 및 지역정보자료의 통합체제에 의한 인포메이션 커먼스 등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복희 등⁶⁾은 대전시 도서관 사서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을 실시하여 수집된 데이

-
- 1) 경상남도 교육청, 공공도서관 실태 분석팀, (공공도서관 기능확대와 운영활성화를 위한) 실태분석 및 운영혁신 방안(부산 : 경상남도교육청, 2005). ; 경기도 편,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정책 발전 방향(수원 : 경기도, 2007). ; 정독도서관, 서울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서울 : 정독도서관, 2008).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지역 도서관 발전방안 연구(부산 : 부산발전연구원, 2009). ; 배순자, "전라북도 지역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제40권, 제3호(2009. 9), pp.23-40. ;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대전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대전 : 한밭도서관, 2009).
 - 2) 국립중앙도서관, 통합대출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협력 방안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9).
 - 3) 이상복, 이용훈, 박승진,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1호(2008. 6), pp.9-11.
 - 4) 남영준, 김규환, 남태우,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08. 3), pp.177-192.
 - 5) 배순자,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지역공공도서관의 협력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08. 9), pp.45-59.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3호)

터, 시범운영결과 등 대전광역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모델과 운영 모델, 협력사업의 범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에 관한 선행연구로, 인천발전연구원⁷⁾은 2005년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 확충사업 추진 및 시립도서관(현 미추홀도서관)⁸⁾의 확장 이전을 앞두고 인천의 도서관 정책방향과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인천의 공공도서관 현황을 개관하고 시립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천 시립도서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인력의 전문화, 조직 및 관장 직급의 상향 조정, 고서보존 및 인천광역시 근대사 연구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 외국 주요도시와의 협약을 통한 자료수집 등을 건의하였다.

홍미자⁹⁾는 인천광역시의 교육청 산하 8개 공공도서관의 시설, 예산, 자료, 조직 등 일반 현황과 정보화, 이용자서비스, 평생학습프로그램, 학교도서관 지원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으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 확립, 지속적 확충, 예산 및 인력 확보, 합리적인 장서구성, 조직구조 개선, 행정체제의 확립,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학교도서관 지원 전담가 배치 등을 제안하였다.

노경환¹⁰⁾은 인천지역 14개 공공도서관 중 9개관을 대상으로 입지를 분석했으며, 『2006 한국도서관연감』의 데이터를 근거로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발전방안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정체성 재정립, 최적의 입지선정과 증설, 예산배정과 장서구성의 개선, 적정인력의 확보와 조직개편, 웹환경의 조성 및 최적화, 이용자봉사의 개선과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2006년 도서관법 개정으로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어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도서관정책수립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아직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도서관 상호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

6) 한복희 등,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협력체계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1호(2010. 3), pp.267-295.
7)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의 운영효율화 방안(인천 : 인천발전연구원, 2005).
8) 시립도서관은 1922년 인천부립도서관으로 현 자유공원내에 개관하여 해방 후 1946년 을목동으로 이전하였으며, 2009년 6월 현재의 남동구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개관하였으며, 도서관명을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으로 바꿨다.
9) 홍미자,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인천지역 8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05).
10) 노경환, 공공도서관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2008).

II. 국내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현황 및 해외 사례

1.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정책

2006년 10월 공포된 개정 『도서관법』에 의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수립·심의·조정 기구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 사무기구로서 문화관광부에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두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도서관정보정책의 통합적 수립·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생겼으며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가 강화되었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로 하여금 매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는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은 동위원회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매년 1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현황, 공동보존서고의 운영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제12조, 14조, 15조, 시행령 제15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중 협력업무와 관련하여 『도서관법』시행령 제10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는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분담수서, 상호대차, 종합목록 및 공동보존, 자료 보존 관련 교육,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지역의 자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주도하고 도서관정책을 수립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설치와(동법 제22조) 이를 심의하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동법 제24조)는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 도서관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법』제28조(업무)는 공공도서관의 업무로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를 포함하고 있다.

2008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¹¹⁾을 수립·발표하였다. 그리고 종합계획의 정책과제와 관련된 3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시·도 교육청 포함)는 종합발전계획의 8대 정책영역 중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5개 정책영역에 대하여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2009년과 2010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8대 정책영역 중 도서관 협력기반 강화 정책 영역인 제 8영역은 주요정책과제로 전국도서관 협력 체계 강화, 도서관상호대차 운영 및 활성화 등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발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1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편,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서울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pp.15-22.

2. 국립중앙도서관 협력망 사업 현황

가. 공공도서관 정보화 및 종합목록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업무의 효율화 및 서지작성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공동목록, 도서관 상호대차 등의 협력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이하 KOLAS) 보급, KORMARC 포맷의 제정,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이하 KOLIS-NET)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다. KOLAS의 보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의 87.4%(표 1 참조)가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도서관 중 60.9%가 KOLASII를, 30.2%가 KOLASIII를 사용하고 있다.¹²⁾

〈표 1〉 공공도서관의 KOLAS 보급 및 KOLIS-NET 참여 현황

(관, %)

	전체응답도서관	KOLAS사용	KOLIS-NET참여
2004년	487(100)	385(79.1)	308(63.2)
2005년	514(100)	411(80.0)	380(73.9) ¹³⁾
2006년	564(100)	434(77.0)	458(81.2)
2007년	400(100)	326(83.8)	239(59.8)
2008년	531(100)	464(87.4)	576(94.9)

자료: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 2005년~2009년 자료 종합.

KOLIS-NET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네트워크로서 2001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분담목록, 도서관상호대차, 협력형 디지털 참고봉사 등의 협력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 도서관은 2004년 당시 전체 487개 공공도서관 중 308개관(63.2%)¹⁴⁾에 그쳤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8년 말에는 총 607개 공공도서관 중 576개관(94.9%)에 달하였다.

전국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통합목록 데이터베이스인 국가자료공동목록DB는 매년 서지데이터가 50만건 정도씩 증가하여 2008년 말 현재 서지데이터 누적 건수가 600만 건을 초과하였다.¹⁵⁾

나. 도서관 상호대차(책바다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 지역표준 상호대차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2007년에는 KOLIS-

12) 국립중앙도서관 편, 2009 공공도서관 협력사업 실태 자료집(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9), p.50.

13) KOLISNET 홈페이지, <<http://www.nl.go.kr/kolisnet>> [인용 2010. 5. 28].

14) 국립중앙도서관 편, 2005 공공도서관 협력사업 실태 자료집(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5), p.7.

1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편,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09년도 시행계획(서울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p.316.

NET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표준 도서관상호대차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008년 4월부터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는 책바다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2010년 5월 현재 공공도서관 389개관과 대학도서관 100개관¹⁶⁾이 참여하고 있다.

다. 협력형 디지털 참고봉사

2005년부터 CDRS(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시스템의 개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9년 2월부터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이름으로 국내 도서관이 상호협력하는 협력형 디지털 참고봉사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5월 현재 327개관¹⁷⁾이 참여하고 있다.

라. 국가문헌공동보존 사업

2006년 국내도서관 자료보존실태의 관중별, 권역별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차원의 종합적 보존처리를 위한 “자료보존처리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¹⁸⁾ 이 후 2007년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의 보존처리기술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선 공공도서관의 공간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동보존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마. 장애인서비스 협력체계 및 어린이도서관 협력 사업

2004년부터 국가전자도서관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 원문정보 DB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¹⁹⁾ 점자·녹음도서 등 장애인용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시각장애인용 자료종합목록DB와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DB를 구축,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2007년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2008년에는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설치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는 일선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정보누리터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²⁰⁾ 2007년 전국 지역대표관 16개관을 중심으로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전국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06년 11월 『전국어린이서비스담당사서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2007년 어린이도서관협력체제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을 개설하였다. 2009년 7월부터는 전국어린이서비스협의회 홈페이지를 개설²¹⁾하여 운영하고 있다.

16)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nill/user/Info/Map/index.jsp>> [인용 2010. 5. 5].

17)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ask/index.php?lib_id=011001&lib_name=Array> [인용 2010. 5. 5].

18) 국립중앙도서관 편, 2007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7), p.74.

19) *Ibid.*, p.75.

20) 장애인포털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able.dlibrary.net/boards/show/7/215/0.do>> [인용 2010. 6. 2].

3. 전국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현황

가. 공공도서관 정보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위도서관의 정보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단일화는 협력서비스 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다.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업무자동화 소프트웨어는 거의 KOLAS로 단일화 되어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KOLIS-NET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소장목록 DB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중 소장목록DB를 구축한 도서관은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말에는 조사된 공공도서관이 전부 소장목록 DB를 구축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공공도서관의 소장목록DB 구축 현황

(관, %)

	응답도서관 전체	소장자료목록DB 구축도서관	자료유형별 소장자료 목록 DB 구축 도서관				
			단행본	비도서	연간물	고서*	기타
2004년	487(100)	367(75.4)	367(75.4)	303(62.2)	49(10.1)	15(3.1)	66(13.6)
2005년	514(100)	441(85.8)	430(83.7)	361(70.2)	64(12.5)	25(4.9)	45(8.8)
2006년	564(100)	462(81.9)	462(81.9)	388(68.8)	43(7.6)	18(3.2)	38(6.7)
2007년	400(100)	400(100)	342(85.5)	264(66.0)	52(13.0)	18(4.5)	29(7.3)
2008년	531(100)	531(100)	526(99.1)	416(78.3)	92(17.3)	88(16.6)	-

자료: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 2005년~2009년 자료 종합.

* 2008년은 기타 항목을 없애고 '고서' 항목을 '향토자료(고서)'로 조사.

** 2004년 데이터는 경남지역 공공도서관이 누락된 것임.

공공도서관의 자료유형별 소장목록 DB 구축현황을 보면, 2008년 현재 응답도서관 중 단행본이 531개관 중 526개관(99.1%), 비도서자료가 416개관(78.3%), 연속간행물이 92개관(17.3%), 향토자료(고서)가 88개관(16.6%)으로 단행본과 비도서자료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연속간행물이나 고서, 기타자료에 대한 소장목록DB를 구축하는 공공도서관의 수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그 수 또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단행본 위주의 소장목록 DB구축 현상은 2004년 이후 5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다. 소장목록DB가 소장자료의 검색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호대차 등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단행본 이외의 소장자료 전 유형에 대한 소장목록DB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cy.go.kr/>> [인용 2010. 6. 2].

나. 공동목록

2008년 현재 KOLIS-NET를 활용하여 공동목록을 실시하는 공공도서관은 296개관(55.7%)으로 전체 공공도서관의 절반을 약간 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105개관(21.6%)에서 2005년 297개관(57.8%)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후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KOLIS-NET는 전국공공도서관의 종합목록으로서 분담목록을 통한 목록노력 경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소장자료 검색도구로서 공공도서관 상호협력서비스의 기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목록 참여도서관이 절반정도에 그친다는 것은 종합목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표 3> 공공도서관의 공동목록실시 현황 및 편목시 활용 DB

(관, %)

년도	응답도서관 전체	공동목록 실시도서관 KOLIS-NET 활용	편목시 사용 DB		
			KOLIS-NET	국립중앙도서관DB	기타
2004	487(100)	105(21.6)	123(25.3)	247(50.7)	43(8.8)
2005	514(100)	297(57.8)	297(57.8)	75(14.6)	42(8.2)
2006	564(100)	382(67.7)	382(67.7)	379(67.2)	109(19.3)
2007	400(100)	211(52.8)	239(59.6)	64(16.0)	5(1.3)
2008	531(100)	296(55.7)	337(63.5)	103(19.4)	25(4.7)

자료: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 2005년~2009년 자료 종합.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편목업무에 활용하는 서지DB를 살펴보면, 2004년에는 247개관(50.7%), 즉 절반 정도의 공공도서관이 편목시 국립중앙도서관 DB를 이용하였으며, 123개관(25.3%)만이 KOLIS-NET의 국가자료공동목록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편목시 KOLIS-NET의 국가자료공동목록을 활용하는 도서관이 337개관(63.5%)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국립중앙도서관 DB를 활용하는 도서관이 103개관(19.4%)으로 감소하여, 국가자료공동목록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분담수서

분담수서를 실시하는 공공도서관은 거의 매년 감소하여 2004년 203개관(41.7%)에서 2008년에는 131개관(24.7%)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분담수서를 실시하는 공공도서관 대부분이 전체 수서예산 중 10%이하를 분담수서에 할당하고 있다. 분담수서를 통하여 장서를 특성화하고 자원공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분담수서 실시 도서관이 매년 감소하였다는 것은 분담수서와 연계된 상호대차, 통합대출 등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4〉 공공도서관의 분담수서 실시 현황

(관, %)

년도	응답도서관 전체	분담수서 실시 도서관	전체 수서예산 대비 예산할당비율	자료유형별 분담수서 실시 도서관	
				자료유형	도서관수
2004	487(100)	203(41.7)	평균9%	자료없음	
2005	514(100)	222(43.2)	평균9.5%		
2006	564(100)	195(34.6)	평균9.1%		
2007	400(100)	115(28.8)	115개관 중 75개관(65.2%) 이 10%이하	인쇄자료	105(26.3)
				전자자료	11(2.8)
				향토자료	10(2.5)
2008	531(100)	131(24.7)	131개관 중 97개관(74.1%) 이 10%이하	단행본	129(24.3)
				연간물	4(0.8)
				향토자료	8(1.5)
				비도서자료	11(2.1)

자료: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 2005년~2009년 자료 종합.

분담수서를 실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분담수서 자료유형은 2007년의 경우, 전체 분담수서실시 도서관(115개관) 중 105개관(91.3%)이 인쇄자료를 분담수서하고 있으며, 전자자료와 향토자료는 각각 11개관(9.6%), 10개관(8.7%)에 불과하다. 그리고 2008년의 경우 분담수서실시도서관(131개관) 중 129개관(98.5%)이 단행본을 분담수서하고 있으며, 연속간행물과 향토자료(고서) 및 비도서 자료는 각각 4개관(3.1%), 8개관(6.1%), 11개관(8.4%)에 그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인쇄자료 및 단행본의 분담수서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²⁾

라.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중 상호대차(관외대출)를 실시하는 도서관은 2004년(124개관, 25.5%)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며, 2008년 4월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는 도서관상호대차서비스인 책바다

〈표 5〉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추진 현황

년도	응답도서관 전체 (관, %)	관외대출(실물대차)			복사서비스			관외대출증공유 공공도서관(관, %)
		도서관 (관, %)	총건수 (건)	평균건 (건)	도서관 (관, %)	총건수 (건)	평균건 (건)	
2004	487(100)	124(25.5)	241,126	1,944.6	52(10.7)	1,011	19.4	186(38.2)
2005	514(100)	149(29.0)	65,013	436.3	55(10.7)	410	7.5	209(40.7)
2006	564(100)	177(31.4)	1,005,448	5,680.5	45(8.0)	4,519	100.4	241(42.7)
2007	400(100)	135(33.8)	자료없음		23(5.8)	자료없음		168(42.0)
2008	531(100)	284(53.5)	1,636,477	5,762.2	21(4.0)	18,091	861.5	246(46.3)

자료: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 2005년~2009년 자료 종합.

22) 국립중앙도서관 편, 2009 공공도서관 협력사업 실태 자료집(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9), p.234의 자료를 근거로 재산출.

서비스가 시행된 후 크게 증가하여 2008년 말에는 284개관(53.5%)에 달하였다.

2008년 공공도서관간 관외대출(실물대차)서비스의 실적²³⁾을 보면 단행본 대차 실적이 전체의 99.98%를, 이용자의 직접 방문이 전체의 85.4%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단행본을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상호대차가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문복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2004년 이후 그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의 연간 평균 실적은 2004년 19.4건에서 2008년 861.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관외대출증 공유는 대출회원정보공유를 통한 통합대출서비스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타공공도서관과 관외대출증을 공유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수는 2004년 이후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까지 크게 변화하지는 않고 있다.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에서 나타난 이상과 같은 현상은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2004년 이후 지역별로 통합자료검색, 대출회원정보공유, 통합대출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공공도서관이 증가하여 상호대차보다는 개인이 자료를 대출하는 것이 편리해지고,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자료검색 및 원문DB 공유로 인하여 원문복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더라도 실적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마. 공동보존

2004년 이후 전지역의 공공도서관이 공동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동보존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⁴⁾ 2007년과 2008년, 지역내 공동보존 서고가 설치되어 있다고 조사된 공공도서관은 각각 3개관(0.8%)과 22개관(4.1%)으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자체보존서고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2004년 53개관(10.9%)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8년에는 314개관(59.1%)에 달하였으며, 폐기기준 및 이관기준을 마련하는 도서관 역시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내 공공도서관들은 늘어나는 장서로 인한 공간문제를 자체 보존서고의 확충과 그 동안 미뤄온 장서의 폐기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체보존서고의 공간조차도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71.7%로 충분하다는 응답(6.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아직 자체보존서고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 역시 많아 공동보존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을 말해준다.

23) *Ibid.*, pp.77-78을 근거로 재산출.

24) 국립중앙도서관 편, 2005년도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5), p.168.; 국립중앙도서관 편, 2006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p.53.

〈표 6〉 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 현황

(관, %)

년도	응답도서관 전체	공동보존			
		지역내 공동 보존서고 설치	자체 보존서고 설치	폐기기준 갯춤	지역적으로 자료이관기준 갯춤
2004	487(100)	-	53(10.9)	51(10.5)	-
2005	514(100)	-	152(29.6)	144(28.0)	-
2006	564(100)	-	192(34.0)	144(25.5)	61(10.8)
2007	400(100)	3(0.8)	206(51.5)	330(82.5)	149(37.3)
2008	531(100)	22(4.1)	314(59.1)	422(79.5)	167(31.5)

자료: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 2005년~2009년 자료 종합.

바. 작은도서관(문고포함)과의 협력

2006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병원·병영·교도소·어린이도서관과 같은 불특정 지역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됨으로써 2008년부터 협력사업 실태조사에 이들 도서관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었다.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이 조사된 첫 해인 2007년, 전국 공공도서관 400개관 중 176개관(44.0%) 이 작은도서관과의 협력활동을 했으며, 96개관(24.0%)이 장애인, 병원, 병영, 교도소도서관과 협력활동을 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전국 공공도서관 531개관 중 201개관(37.9%)이 작은도서관과, 108개관(20.3%)이 병원·병영·교도소도서관과 협력활동을 함으로써 백분율로 볼 때,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⁵⁾

협력대상이 된 작은도서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문고나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이 많았으나, 2008년에는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어린이도서관, 공부방 등과의 협력활동을 하는 공공도서관이 많아 협력대상 작은도서관의 유형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및 장애인·병원·병영·교도소도서관과의 협력유형은 2007년과 2008년 모두 순회문고운영이 가장 많았다.²⁶⁾

4. 해외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사례

가. 東京都立圖書館

2004년, 東京都立圖書館協議會는 지방분권,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위기, 사회의 고도정보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와 2001년 文部科學省이 고시한 『公共圖書館の設置及運營上の望ましい基準』

25)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 2008년~2009년 자료 종합.

26) 국립중앙도서관, 2008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8), pp.323, 357-358. ; 국립중앙도서관, 2009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9), pp.149, 159-164.

등 새로운 도서관정책에 근거하여 관중과 지역을 초월한 도서관 협력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구시정촌립도서관의 네트워크를 재점검하고 도서관간의 협력 조정 등 전체 사업을 점검하여 새로운 협력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제언을 하였다.²⁷⁾

東京都立圖書館이 2009년 8월 발행한 자료²⁸⁾에 의하면 동경도는 23구, 6도, 26시, 3정, 1촌의 자치체로 구성된 인구 12,942,366명의 대도시로, 공공도서관은 도립도서관 2개관과 구시정촌립도서관 383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각 자치체별로 중심관(거점관)을 두고 있으며, 중심관은 도립도서관과 단위도서관간의 협력대출, 상호대차 등 상호협력업무의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도립도서관 2개관은 개인대출은 하지 않고 있으며, 23개 구 중 13개구 도서관은 타자치체 주민에게도 자료를 대출하고 있다. 10개구와 島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정촌도서관은 협정에 의하여 인접한 자치체 주민에게도 자료를 대출을 하고 있다.

동경도의 도립도서관은 中央圖書館과 多摩圖書館의 2개관으로, 中央圖書館 기획경영과의 협력지원계와 多摩圖書館의 관리계 협력대출담당이 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홈페이지²⁹⁾에 구시정촌립도서관과의 협력사업을 위하여 도내 공공도서관 전용페이지를 두고 협력대출신청메뉴 및 상호협력 코너 메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경도내의 중앙관으로서 구시정촌립도서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협력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³⁰⁾

- (1) 협력대출: 中央圖書館과 多摩圖書館은 동경도내 구시정촌립도서관에게 해당 자치체내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한하여 일반도서, 신문, 잡지 등의 소장자료를 대출하고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 혹은 팩스로 접수하고, 대출과 반납을 위하여 동경도내의 구시정촌을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그 블록의 중심관에 1주일에 1회 협력차를 운행하고 있다.
- (2) 도내 공립도서관간의 상호대차: 『東京都 ISBN 總合目錄』 및 횡단검색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23구와 多摩지역 공공도서관간의 자료상호대차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구시정촌립도서관들이 동일 블록 내에서 혹은 서로 다른 블록 간에 상호대차, 교환 등의 협력업무를 시행한다.
- (3) 협력복사: 도립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도내 구시정촌립도서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복사·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사요금은 일정범위까지는 도립도서관에서 부담한다.
- (4) 종합목록의 작성 및 통합검색: 도립도서관은 도내 전자자치체(52구시정)가 참여하는 『東京都 ISBN 總合目錄』을 작성·배포하고 있으며, 도내 공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문, 잡지의

27) 東京都立圖書館協會, 都内公共圖書館發展のための連携協力について: 提言2(東京: 東京都立圖書館協會, 平成16(2004)), pp.1-8.

28) 東京都立圖書館 編, 平成21年度 東京都公共圖書館調査, <<http://www.library.metro.tokyo.jp>> [인용 2010. 7. 27].

29) 東京都立図書館 Home page, <<http://www.library.metro.tokyo.jp>>.

30) 東京都立中央圖書館 編, 都立中央圖書館 協力ハンドブック: 平成 21年度版(東京: 東京都立中央圖書館, 平成 21(2009)), pp.1-51.

소장관이나 보존기간이 수록되어 있는 『구시정촌립도서관신문·잡지종합목록』을 CD-ROM 판으로 발행·배포하며, 도립도서관 홈페이지 상에서도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동경도공립도서관 횡단검색에는 현재 51개 자치체가 참여하고 있다.

(5) 도립도서관의 협력 참고봉사

도내의 구시정촌립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하여 자관의 자료 등으로는 충분한 회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도립도서관이 구시정촌립도서관의 요청에 응하여 조사, 회담함으로써 구시정촌립도서관의 참고봉사를 지원한다. 도립도서관에서 회답할 수 없는 질문은 국립국회도서관에 팩스나 전자메일로 보낸다.

(6) 기타 도서관직원연수회, 협력사무담당자회, 도내공립도서관정보의 수집, 동경도공립도서관을 가이드 작성, e-메가진 발행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나. LOUIS 와 LLN

LOUIS와 LLN은 루이지애나주의 다관종 도서관협력사업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LOUIS(The Louisiana University Information System)는 1992년 The Louisiana Board of Regents에 의하여 설립된 루이지애나주 대학도서관 네트워크로서 공·사립 대학도서관이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회원도서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Louisiana State University) 전산센터내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도서관자동화, 종합목록, 전자자원, 승인, 훈련, 관련 사이트 및 리스트서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999년에는 LOUIS: the Louisiana Library Network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³¹⁾ 현재 49개 회원도서관³²⁾이 참여하여 연간 350만 달러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LLN(Louisiana Library Network)은 루이지애나주 64개 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중, 지역당 1개의 공공도서관과 초중등학교도서관 18개관이 참여하는 도서관상호협력망으로 LLN의 구축은 LOUIS 사무국이 주도하였다. 즉 LOUIS 사무국은 1994년부터 1995년에 걸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직원을 훈련하는 등 LLN 구축업무를 수행하였다.

LOUIS 사무국은 LOUIS와 LLN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LOUIS/LLN 참여기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각각 대학도서관(LALINC-L), 공공도서관(LLN-L), American Library Services Vista 제품 이용자그룹(DVISTA-L)으로 구성되는 3개의 메일링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다.³³⁾

31) Barbara J. Wittkopf, "Resource sharing in Louisiana," *Resource sharing & Information Network*, Vol.16, Issue.1(2002), p.118.

32) 4년제 공립대학도서관 14개관, 2년제 공립대학도서관 11개관,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11개관, 전문도서관 11개관, 박물관 2개관. LOUIS Home page, <<http://appl003.lsu.edu/ocswweb/louishome.nsf/>> [cited 2010. 09. 14].

LOUIS의 협력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⁴⁾

- ① 통합도서관서비스(Integrated Library Services) - 29개 대학도서관의 자동화를 주관하고 지원한다. 이들 대학도서관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 ② 전자자원 구독(E-Subscriptions) - 원문을 중심으로 연간 200만달러의 예산을 지출하여 전자자원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다. 또한 개별 회원도서관의 전자자원 구독 협상과 계약을 지원하고 있다.
- ③ 도서관상호대차 - 회원도서관의 도서관상호대차 업무 자동화를 지원한다. LOUIS의 상호대차 처리건수는 연간 30만건 이상이며, 신청서 제출과 자료의 도착 및 지연에 대한 통지는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 ④ 디지털도서관 - LOUIS가 회원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기반을 주관하고 지원한다. 또한 LOUISiana Digital Library를 통하여 60,000종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⑤ 연합탐색 - 회원도서관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모든 도서관의 전자자원을 검색할 수 있도록 연합탐색엔진을 제공하고 있다.
- ⑥ 인증 - 암호화된 인증장치를 제공하여 회원들의 전자자원 접근을 보호하며, 캠퍼스 외부에서의 전자자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⑦ 링크서비스 - 전자자원 탐색 결과, 서지사항을 원문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 ⑧ 종합목록(LOUISiana Union Catalog) - 종합목록은 1,450만 종이 넘는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동일한 웹 인터페이스로 루이지애나 소재 대학도서관의 소장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 ⑨ 전자 지정도서 시스템(ERS:Electronic Reserve System)³⁵⁾ - 대학 교수가 전자형태의 교수자료를 도서관에 지정하여 여러 명의 학생이 동시에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립도서관(The State Library of Louisiana)을 중심으로 한 LLN의 협력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⁶⁾

- ① 공공도서관 온라인 대출망 운영 - 공공도서관 온라인 대출망을 통하여 루이지애나 주민들에게 1100만종 이상의 소장 장서와 전자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② Louisiana Library Connection Databases - 공공도서관 카드를 소지한 루이지애나 주민들에게 무료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998년 시작되었으며³⁷⁾ 루이지애나 주

33) LOUIS Home page, <<http://appl003.lsu.edu/ocswweb/louishome.nsf/>> [cited 2010. 09. 14].

34) LOUIS Brochures, 2007,
<[http://appl003.lsu.edu/ocswweb/louishome.nsf/\\$Content/LOUIS+Brochures/\\$File/Brochure2007.pdf](http://appl003.lsu.edu/ocswweb/louishome.nsf/$Content/LOUIS+Brochures/$File/Brochure2007.pdf)>
[cited 2010. 09. 13].

35) Barbara J. Wittkopf, *op. cit.*, p.112.

36) The State Library of Louisiana Home page, <<http://www.state.lib.la.us/>> [cited 2010. 9. 14].

37) 이전에는 LOUISE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주립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용의 데이터베이스 구독 계약을 주관했

립도서관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연구자료로부터 전문인력을 위한 학술지,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를 위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주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대표로 구성된 Database Committee가 데이터베이스 선정에 심의하고 권고한다.

- ③ LDL(LOUISiana Digital Library) - 루이지애나주 소재 기관들의 온라인 도서관으로 기록보관소,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전자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리파지토리로부터 주민, 학생, 연구자 및 타지역 이용자들에게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HomeworkLouisiana - 루이지애나 주립도서관이 최근에 시작한 무료 교육서비스이다. 초·중·고등학교, GED를 준비하는 성인 및 전문대학생들에게 일대일 과제지도를 제공하는 실시간 온라인 가정교사라고 할 수 있다. 1800명 이상의 교사, 교수, 대학원생, 대학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립도서관은 이 서비스를 주 전역의 공공도서관에 제공하여 루이지애나주 전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도서관 상호대차 - 주립도서관은 도서관 상호대차를 통하여 타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대출받아 공공도서관, 중·고 이상의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주 정부기구 도서관 등에 대출하고 있다. 자료요청은 반드시 OCLC나 루이지애나주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인 Loan Shark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연속간행물은 저작권 규정에 따라 기사 단위로 복사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민간업체에 보조금을 주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대한 도서관자료 택배서비스³⁸⁾를 하고 있다.

Ⅲ.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현황분석

1.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현황

가. 인천광역시 일반 현황

인천광역시는 개항과 함께 서울의 관문역할을 하면서 항만 관련 산업 및 교역 중심지로서 성장한 한국 제2의 항구도시이다. 특히 1960년 이후 경제개발계획으로 경인공업지대의 중심을 이루면서 제조업이 발달하여 현재는 항만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중공업도시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행정구역은 8개구 2개군, 1개읍 19개면 135개동(법정동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다.

다(Barbara J. Wittkopf, *op. cit.*, p.110).

38) *Ibid.*, p.112.

〈표 7〉 인천광역시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2009년 말 현재(단위: km², 명, (%))

	연면적	인구수	60세이상	만14세이하	등록장애인	외국인	인구수
중구	121.15 (11.8)	89,688 (3.3)	15,095 (16.8)	13,581 (15.1)	4,767 (5.3)	3,862 (4.3)	89,688 (100)
동구	7.19 (0.7)	77,308 (2.9)	14,041 (18.2)	11,362 (14.7)	4,905 (6.3)	1,188 (1.5)	77,308 (100)
남구	24.85 (2.4)	419,935 (15.5)	62,259 (14.8)	61,080 (14.6)	20,832 (5.0)	6,514 (1.6)	419,935 (100)
연수구	42.74 (4.2)	271,497 (10.0)	26,042 (9.6)	48,493 (17.9)	11,029 (4.1)	3,099 (1.1)	271,497 (100)
남동구	56.86 (5.5)	463,414 (17.1)	50,774 (11.0)	81,304 (17.5)	20,794 (4.5)	1,471 (2.5)	463,414 (100)
부평구	31.99 (3.1)	563,920 (20.8)	65,293 (11.6)	93,741 (16.6)	27,175 (4.8)	7,780 (1.4)	563,920 (100)
계양구	45.58 (4.4)	344,039 (12.7)	30,780 (9.0)	62,253 (18.1)	13,794 (4.0)	3,257 (1.0)	344,039 (100)
서구	113.62 (11.1)	395,508 (14.6)	38,162 (9.7)	77,911 (19.7)	17,537 (4.4)	10,026 (2.5)	395,508 (100)
강화군	411.33 (40.1)	67,049 (2.5)	20,617 (30.8)	7,499 (11.2)	4,808 (7.2)	548 (0.8)	67,049 (100)
옹진군	171.70 (16.7)	18,221 (0.7)	4,703 (25.8)	2,134 (11.7)	1,216 (6.7)	107 (0.6)	18,221 (100)
인천 계	1,027.01 (100)	2,710,579 (100)	327,442 (12.1)	459,398 (17.0)	126,857 (4.7)	47,852 (1.8)	2,710,579 (100)

자료: 인구수 - 통계청 홈페이지, [인용 2010. 7. 4].

장애인수 - 2009년장애인통계(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w.go.kr/>>) [인용 2010. 7. 4].

연면적: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인용 2010. 7. 4].

연면적은 1027.01km²로서 전 국토면적의 0.96%를 차지하고 있으며 7대 도시 중 2위의 면적규모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천은 옹진 및 강화의 여러 섬이 편입됨으로써 가장 많은 도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북서부의 백령도에서 남서부의 덕적도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해역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인도는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 서구가 각각 5개, 9개, 25개, 1개를 포함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인구는 271만 579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구는 부평구이며, 부평구, 남동구, 남구에 절반 이상이 밀집되어 있다. 도서인구는 2007년 23,375명으로 2005년의 21,213명보다 증가했다.³⁹⁾ 인구밀도는 부평구가 17,628명/km²으로 가장 높고, 중구가 740명/km²으로 가장 낮다.

각 군·구별 인구분포의 특성(표 7)을 살펴보면, 강화군과 옹진군은 경기만의 섬들로 구성된 군으로, 강화군의 경우 면적이 인천 전체면적의 40%에 달하나 인구수는 2.5%에 불과하며, 인구가 가장 적은 옹진군은 절반정도가 백령면과 영흥면에 거주하고 있다.

39)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인용 2010. 7. 4].

인구 구성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 중구가 60세 이상 인구⁴⁰⁾가 각각 군·구민의 30.8%, 25.8%, 18.2%, 16.8%로 인천시 전체 평균 12.1%를 크게 웃돌고 있다.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 인구는 서구, 계양구, 연수구, 남동구가 각각 구민의 19.7%, 18.1%, 17.9%, 17.5%로 인천시 평균인 17.0%를 다소 웃돌고 있으나 어린이 인구가 특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군·구는 없다. 그리고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인천광역시 평균(4.7%)보다 많은 곳은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 중구로 각각 7.2%, 6.7%, 6.3%, 5.3%이다. 장애인 관련단체를 제외한 장애인 복지시설은 전체 24개⁴¹⁾ 중 10개가 부평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등록장애인 비율이 높은 4개 군·구에는 옹진군에 생활시설 2개, 강화군에 직업재활시설 1개가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없다. 외국인수가 인천광역시 평균(1.8%)보다 많은 곳은 중구, 남동구, 서구로 각각 4.3%, 2.5%, 2.5%이다.

나.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현황

〈표 8〉과 같이 인천의 공공도서관은 2010년 5월 현재 총 26개관으로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에 각 1개관, 남구에 7개관, 서구와 계양구에 각 4개관, 부평구에 3개관, 남동구와 연수구에 각 2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1922년 일제시대 인천부립도서관으로 시립도서관이 개관된 이래 1980년대 3개관, 1990년대 4개관, 2000년 이후에 18개관이 각각 건립되었다. 2000년 이전에는 시 교육청과 군에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였으며, 2004년 이후에는 주로 기초자치단체인 구에서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시작하여 구립 공공도서관이 전체 26개관 중 12개관에 이른다. 문고는 문고가 없는 중구를 제외한 9개 군·구에 총 183개로, 이들 문고의 장서수 합계는 612,096책이다.

인천광역시의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104,253명으로 2008년 전국 평균 76,926명⁴²⁾의 1.36배에 달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목표하는 5만명의 두 배가 넘는다. 군·구별로 보면 남동구가 231,707명으로 가장 많아 전국평균의 3배, 인천 평균의 2.2배에 달한다. 10개 군·구 중 인천광역시 평균을 웃도는 곳은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의 3구로서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수는 타 군·구에 비해 많으나 구립도서관이 없거나 1개관뿐인 곳이며, 인천광역시 평균을 밑도는 곳은 최근 소규모 구립도서관을 설립하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의 소장 장서 현황을 살펴보면, 10만권 이상의 도서관이 9개관, 5만권 미만 3만권이상이 7개관, 3만권미만 1만권 이상이 6개관, 1만권 미만이 4개관이다. 10만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9개관은 시립미추홀도서관과 교육청이 운영하는 8개관이며, 5만권미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대부분 2000년 이후 설립된 군·구립도서관이다.

1인당 장서수는 0.83책으로 전국의 2008년 평균인 1.18책⁴³⁾의 70% 수준이다. 군·구별로 보면,

40)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어르신서비스 대상연령은 대체로 60세임.

41)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인용 2010. 7. 4].

42)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도서관연감 2009(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9), p.47.

43) *Ibid.*, p.48.

10개 군·구 중 인천광역시 평균을 웃도는 곳은 강화군, 동구, 남동구, 부평구이며, 인천광역시 평균을 밑도는 곳은 남구, 서구, 연수구, 계양구, 중구, 옹진군이다. 특히 중구와 옹진군은 1인당장서수가 0.5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8〉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현황

2010년 5월 말 현재

구	도서관명	장서수(권)	연면적(m ²)	'09 예산(백만원)		전체직원/사서(명)	개관년도	1관당 봉사대상인구(명)	1인당 장서수*	문고	
				총예산	자료구입비					수	장서수
중구	영종 ¹⁾	43,767	2,150	2009년 개관		11/10	2009	89,688	0.49		-
동구	화도진 ²⁾	166,202	3,604	1,281.0	88.0	22/11	1988	77,308	2.15	9	28,674
남구	주안 ¹⁾	221,915	4,996	1,016.0	98.0	24/11	1990	59,991	0.76	23	80,062
	수봉 ¹⁾	34,792	2,986	2009년 개관		12/10	2009				
	학나래 ³⁾	30,393	1,278	123.2	37.0	5/1	2007				
	관교어린이 ³⁾	8,901	389	2009년 개관		3/1	2009				
	독정골어린이 ³⁾	8,068	324	2009년 개관		3/1	2009				
	송의어린이 ³⁾	7,885	431	2009년 개관		3/1	2009				
	죽골어린이 ³⁾	8,577	357	2009년 개관		3/1	2009				
	계	320,531	-								
부평구	부평 ²⁾	199,724	5,663	1,099.0	150.0	26/13	1982	187,973	0.84	43	98,056
	북구 ²⁾	230,417	8,098	1,945.0	134.0	31/14	1991				
	부평기적 ³⁾	42,904	926	422.6	49.9	5/3	2006				
	계	473,045	-								
서구	서구 ³⁾	192,249	3,284	866.0	88.0	22/11	1991	98,877	0.76	25	147,496
	검단어린이 ³⁾	39,153	1,550	262.0	57.0	2/2	2004				
	석남어린이 ³⁾	39,622	1,455	296.0	59.0	5/2	2008				
	심곡어린이 ³⁾	28,331	1,322	2010년 개관		2/2	2010				
	계	299,355	-								
남동구	미추홀 ¹⁾	210,695	13,099	2,634.6	250.0	35/18	1922	231,707	1.10	35	86,718
	중앙 ²⁾	299,074	5,506	1,093.0	123.0	31/15	1983				
	계	509,769	-								
연수	연수 ⁴⁾	143,581	6,354	1,205.0	215.0	25/12	2004	135,749	0.68	24	79,000
	연수어린이 ³⁾	41,453	1,775	498.2	95.0	6/2	2006				
	계	185,034	-								
계양구	계양 ⁴⁾	134,070	5,949	1,242.0	121.0	24/11	2004	86,010	0.55	14	62,000
	서운 ³⁾	18,911	997	122.5	13.0	5/2	2008				
	효성 ³⁾	23,267	1,414	149.0	13.0	5/2	2008				
	동양 ³⁾	11,795	1,601	2010년 개관		5/2	2010				
	계	188,043	-								
옹진	백령 ³⁾	25,616	923	37.8	20.0	1/0	2000	67,049	0.38	1	5,257
강화	강화군립 ³⁾	46,365	871	204.2	20.0	1/1	1994	18,221	2.54	9	24,833
계	26개관	2,257,727	-	14,497.1	1,630.9	317/149		104,253	0.83	183	612,096

1) 시 소유도서관, 2) 교육청 소유도서관, 3) 군·구 소유도서관, 4) 시 소유, 교육청 운영.

* 1인당 장서수에서 문고소장자료는 제외됨.

자료: 교육청 평생교육과, 인천광역시립 미추홀도서관 제공. 공공도서관 장서수(2010. 5월말 현재) - 각 도서관 홈페이지.

연면적 3천㎡이상의 도서관이 9개관, 1천㎡ 이상 3천㎡ 미만이 9개관, 1천㎡ 미만 500㎡ 이상이 4개관이다. 500㎡ 미만이 4개관이다. 연면적 3천㎡이상의 9개관은 시립미추홀도서관과 교육청이 운영하는 8개관이며, 남구립도서관은 학나래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500㎡ 미만이다.

예산은 2009년 이후 개관한 8개관을 제외한 18개관⁴⁴⁾의 2009년 예산을 살펴보면 연예산 10억 이상인 도서관이 8개관, 5억 이상 10억 미만인 도서관 1개관, 1억 이상 5억 미만이 8개관, 1억 미만이 1개관이다. 즉 연예산으로 볼 때 교육청 운영 8개관과 미추홀도서관을 포함한 9개관이 연예산 8억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이며 나머지 시·군·구립도서관은 모두 연예산 5억 이하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으로 양분된다. 자료구입예산 역시 1억 이상 6개관,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 6개관, 5000만원 이하 6개관으로 그 규모가 구분된다.

직원은 전체직원이 20명 이상인 도서관은 9개관, 10명 이상 20명 미만 2개관, 10명 미만 도서관 17개관으로 그 중 14개관은 직원이 5명 이하이다. 26개관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은 317명이며 그 중 사서직이 149명으로 사서직 비율은 47%이다.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시립 미추홀도서관, 교육청 소유의 5개관과 군립도서관 2개관, 남구와 연수구의 구립도서관 6개관은 각각 해당 시, 군, 구에서 직영하고 있다. 그리고 시 소유의 주안, 연수, 계양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영종, 수봉도서관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부평구, 서구, 계양구의 구립도서관 8개관은 부평문화재단, 서구시설관리공단, 민간 등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⁴⁵⁾

조직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8개관 중 북구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은 열람봉사과, 문헌정보과, 평생교육운영과, 관리과의 4개과로, 나머지 5개관은 열람봉사과, 문헌정보과, 관리과의 3개과로 편성되어 있다. 미추홀도서관은 운영과(운영지원팀, 도서관정책팀), 문헌정보과(열람봉사팀, 자료보존팀)의 2개과로 편성되어 있다. 운영과의 도서관정책팀이 도서관발전계획수립 및 관내도서관과 교류·협력, 도서관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⁴⁶⁾

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발전 계획

인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목표하는 인구 5만명 당 1개 공공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인구 300만 명을 기준으로 2013년까지 총 60개관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중 26개관은 2010년 6월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8개관은 2013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건립 중인 도서관은 시립 1개관, 군·구립 14개관, 민간기업의 기증도서관 11개관으로, 시립 1개관은 중구 지역 공공도서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인천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군·구립 14개관과 기증도서관 11개관은 건립

44) 이들 도서관은 개관예산이므로 타도서관의 연예산과 비교가 타당하지 않아 제외함.

45)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인천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회의자료(인천 : 동도서관, 2010).

46) 각 도서관 홈페이지.

후 군·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누적 장서수 총 2,393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1인당 장서수 0.81권에 도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⁴⁷⁾ 다문화시대를 감안하여 국제도서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보존도서관 건립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다.⁴⁸⁾

그리고 공공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9년 11월 창립된 공공도서관협의회를 통하여 상호간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인천시 관내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안내하는 『우리동네 도서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미추홀도서관, 북구도서관 등 일부 도서관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9〉 군·구별 공공도서관 확충계획(2010년-2013년)

구분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계
총계	3	2	11	8	11	7	5	6	4	3	60
도서관수	운영중	1	1	7	3	4	2	4	1	1	26
	건립중	2	1	3	4	5	4	1	3	2	26
	건립예정	-	-	1	1	2	1	1	-	-	8

자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시장인수위원회 업무보고자료(2010. 6).

인천시 대표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은 인천시 공공도서관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대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1단계 사업으로 통합대출서비스를 위한 회원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2011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통합서지DB 및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즉 1차적으로 2010년 12월부터 시립도서관과 교육청 운영 도서관, 남구 구립도서관 등 21개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며, 2011년에는 인천시 전체 공공도서관으로 확대 실시하고, 2012년까지는 작은도서관까지 통합대출서비스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⁴⁹⁾

2.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현황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북구도서관이 차례로 전국공공도서관협력망의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도서관법 개정으로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이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으로 기본 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미추홀도서관이 2008년 4월 1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

47)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전게서.

48)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시장인수위원회 업무보고자료(인천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2010).

49)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152.99.43.35:8080> [인용 2010. 6. 28].

시의 도서관정책 수립 및 협력사업의 심의기구로 2010년 4월, 인천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9년 11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가. 공공도서관의 정보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은 백령도서관을 제외한 전 도서관이 2004년 이후 KOLAS를 사용하고 있다. 각 시·도와 비교하면(표 1)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은 비교적 일찍부터 소프트웨어가 단일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6월 현재 26개 공공도서관 중 KOLASIII를 사용하는 도서관은 17개관, KOLASII를 사용하는 도서관이 4개관, KOLASYS를 사용하는 도서관이 4개관이다.⁵⁰⁾ 현재까지 「책꽂이」를 사용하고 있는 백령도서관은 지역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KOLAS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소장자료목록DB 구축 현황을 살펴 보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은 전관이 단행본 소장목록DB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도서자료의 경우 DB구축비율이 단행본에 비하여 다소 낮다. 이는 부평기적의도서관, 효성어린이도서관 등 신축도서관이 개관 초에 비도서자료 소장목록DB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단행본과 비도서자료의 소장목록DB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연속간행물, 고서(향토자료), 기타 자료에 대한 소장목록DB 구축 도서관은 1~2개관에 지나지 않으며 2004년 이후 증가하지도 않고 있다. 자료별 DB 구축율은 2004년 이후 모두 100%에 도달하였다.

〈표 10〉 공공도서관 소프트웨어 사용 및 소장자료 목록 DB 구축 현황 - 인천광역시 (관, %)

	조사대상 공공도서관	KOLAS 프로그램사용	소장자료 목록 DB 구축					구축률
			단행본	비도서	연간물	고서(향토자료)	기타	
2004년	11(100)	10(90.9)	11(100)	10(90.9)	2(18.2)	2(18.2)	1(9.1)	100%
2005년	11(100)	10(90.9)	11(100)	11(100)	3(27.3)	2(18.2)	1(9.1)	
2006년	12(100)	11(91.7)	12(100)	11(91.7)	2(16.7)	2(16.7)	1(8.3)	
2007년	12(100)	11(91.7)	12(100)	11(91.7)	2(16.7)	1(8.3)	1(8.3)	
2008년	17(100)	16(94.1)	17(100)	15(88.2)	2(11.8)	2(11.8)	*	

* 2008년에는 기타 항목이 없음.

자료: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자료집: 공공도서관』, 2005-2009 종합.
백령도서관, 강화군립도서관은 담당자 전화면담.

나. 공동목록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중 공동목록을 실시하는 도서관이 2004년에는 전무하였으나, 2005년부터 교육청 운영 8개관과 시립도서관이 공동목록을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신축 구립도서관이 추

50) KOLAS 홈페이지, <http://www.kolas2.net/>, <http://www.kolas3.net/> [인용 2010. 6. 29].

가되어 10개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비율로 보면 공동목록을 실시하는 공공도서관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개관한 공공도서관이 공동목록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공공도서관의 공동목록실시도서관 현황(표 3)과도 유사하다.

2004년에는 편목시 국립중앙도서관DB를 활용하는 공공도서관이 8개관으로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KOLIS-NET의 국가자료공동목록을 활용하는 도서관이 더 늘어났다.

<표 11> 공동목록실시 공공도서관 및 편목시 활용 DB - 인천광역시

(관, %)

년도	공동목록 실시도서관 KOLIS-NET 활용	공동목록 미실시도서관 KOLIS-NET미활용	편목시 사용 DB			응답도서관 전체
			KOLIS-NET	국립중앙도 서관DB	기타	
2004	-	11(100)	4(36.4)	8(72.7)	4(36.4)	11(100)
2005	9(81.8)	2(18.2)	11(100)	-	-	11(100)
2006	9(75.0)	3(25.0)	-	9(75.0)	3(25.0)	12(100)
2007	8(66.7)	4(33.3)	9(75.0)	-	-	12(100)
2008	10(58.8)	7(41.2)	11(64.7)	4(23.5)	-	17(100)

자료: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자료집: 공공도서관, 2005-2009 종합』

다. 분담수서

1993년 1월부터 당시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공공도서관 장서특성화계획에 근거하여 당시 교육청 운영 6개 공공도서관이 장서특성화란 이름으로 주제별 분담수서와 신문의 분담제본을 시작하였다. 2004년부터는 연수도서관과 계양도서관이 개관되어 분담수서에 참여하게 되었다.

각 도서관은 분담주제자료를 일반자료 구입예산의 10% 이상 구입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른 중점수서분야의 자료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도서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중점수서 분야까지 수서하지는 않고 있으며, 각 도서관별 장서구성 기준비율에 맞추어 현재까지 분담수서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자료의 경우 분담수서 혹은 공동구입은 하지 않고 있으며, 관외대출회원에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웹상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라. 상호대차 및 통합대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은 2004년과 2005년에는 상호대차를 실시한 도서관이 없으며, 2006년에는 1개관, 2007년 2개관, 2008년 5개관이 단행본 상호대차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원문복사서비스는 2006년 시립도서관과 2007년 북구도서관이 서비스 실적이 있다.⁵¹⁾ 그러나 현재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간의 상호대차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전국적인 도서관상호대차서비스인

51) 국립중앙도서관 편,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 2005년~2009년 자료 종합』

“책바다서비스”에 각 도서관들이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상호대차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은 통합대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 말 중앙도서관에 통합서버를 구입하여 2004년부터 교육청 운영 8개 도서관의 통합검색과 통합대출이 시작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당시 시립도서관이 참여하여 현재 9개⁵²⁾ 공공도서관간의 관외대출회원 통합검색 및 대출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마. 공동보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는 한 곳도 없다. 2004년까지 자체보존서고를 갖춘 도서관이 전무하였으나 당시 전체 11개관 중 11개관이 모두 보존서고를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⁵³⁾ 2005년 10개관이 자체 보존서고를 설치하였으나 2008년 현재 자체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8개관이다. 자체보존서고 수용율은 2007년 기준으로 북구도서관 100%, 서구도서관 90%, 연수도서관 22%, 화도진도서관 99%, 주안도서관 71%, 중앙도서관 110%⁵⁴⁾ 등으로 연수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서관이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공동보존서고의 확보 및 관리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2008년 현재 16개관 중 폐기기준과 자료이관기준이 갖추어진 도서관은 각각 14개관(82.4%)과 8개관(47.5%)으로 자료폐기 기준을 갖추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우리나라 각 시·도 전체 평균(79.5%)에 비해 다소 높다.⁵⁵⁾

또한 도서관간 중복제본을 지양하여 장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청 운영 공공도서관 6개관이 1993년부터 신문 22종을 분담제본하고 있다. 이는 장서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도서관의 장서공간 확보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으나 분담제본만으로는 보존공간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공동보존소 건립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공동보존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미추홀도서관이 신축되는 과정에서도 공동보존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바. 지역 공공도서관간 상호협력협약 및 단체

1992년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운영 8개 도서관간의 교류협력을 위해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협력업무를 추진해왔다. 협의회 업무로는 ① 공공도서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 공공도서관 공동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③ 공공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 ④ 중앙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 ⑤ 기타 업무 및 정보교환에

52) 인천평생학습관이 참여하여 사실상 10개 기관의 통합자료검색과 통합대출이 실시되고 있음.

53) 국립중앙도서관 편, 2005년도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5), p.173.

54) 국립중앙도서관 편, 2008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8), p.203.

55) 국립중앙도서관 편, 2009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9), p.25.

관한 사항 등이다.⁵⁶⁾

2008년 4월 미추홀도서관으로 대표도서관이 변경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도서관 업무협력기구로서 새로이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협의회』를 2009년 11월 창립하였다. 그리고 교육청 운영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2010년도에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협의회』를 별도로 신설하였다.

최근 미추홀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협력활동은 주로 교육청 운영 공공도서관 8개관이 주도하고 미추홀도서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다. 1993년에는 주제별 분담수서협약에 따라 분담수서를 시작하였으며, 2004년에는 인천광역시 대출자정보공유에 관한 협약, 국가전자도서관 원문제공에 관한 협약, 통합자료검색시스템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사. 작은도서관과의 협력

2006년 조사가 실시된 이후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및 병영, 병원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주로 교육청 운영 공공도서관 중 5-7개관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아파트, 복지관, 군부대, 병원 등에 순회문고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도소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⁵⁷⁾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로는 2008년 8개 공공도서관이 장애인시설 1개관, 노인시설 5개관, 저소득층 시설 6개관, 다문화계층 시설 3개관으로 총 15개관을 지원하고 있다.⁵⁸⁾

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인천공공도서관의 상호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상호협력의 기반으로서 단위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강화

- ① 공공도서관의 확충: 인천광역시의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104,253명으로 2008년 전국 평균 76,900명⁵⁹⁾의 1.36배에 달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목표하는 5만명의 두 배가 넘는다. 현재 건립중인 26개관이 개관되는 2013년의 인천광역시의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⁶⁰⁾는 5만명 이하

56) 홍미자, 전계서, pp.45-46.

57) 국립중앙도서관 편,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 2007-2009 종합.

58) 국립중앙도서관 편, 2009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9), p.180.

59) 한국도서관협회 편, 전계서, p.46.

60) 부평구 80,560명, 남동구 77,236명, 계양구 68,808명, 연수구 67,874명.

(43,417명)로 감소할 것이나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 연수구는 여전히 봉사대상인구가 5만명을 초과한다. 단순히 인천시의 1관당 봉사대상인구만을 근거로 한 도서관확충사업에 그쳐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지역별 분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 확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중구, 동구, 옹진, 강화의 경우 인구수가 적어 1인당 봉사대상인구는 적으나 지리적으로 면적이 넓고 40여개의 섬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섬지역의 공공도서관은 백령도와 영종도에 각 1개관뿐이고 문고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서비스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설립 지원 등 섬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② 자료구입예산 확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26개관 중 16개관(61.5%)의 자료구입예산이 전국 평균⁶¹⁾을 밑돌고 있다.

2010년 5월 현재,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1관당 평균 장서수는 86,836책으로 2008년 전국 평균⁶²⁾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도서관은 26개관 중 9개관(34.6%)에 불과하다. 인구 1인당 장서수 역시 전국 평균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동구를 제외하면 모두 전국 평균에 미달되며 특히 옹진군과 중구, 계양구는 0.38, 0.49, 0.55책으로 자료구입예산의 확대 및 장서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한국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기준에 의한 기본장서 3만권에 미달되는 10개관은 기본장서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③ 전문인력 확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26개관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은 317명이며, 그 중 사서직이 149명이다. 2009년 이후 개관되어 아직 운영 초기에 있는 8개관을 제외한 18개관의 사서직은 141명으로 법정사서인력⁶³⁾ 정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광역시는 전문인력확보의 결핍돌이 되고 있는 공무원 정원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을 타개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역대표도서관의 위상 강화 및 도서관정책수립 기구의 실효성 있는 운영

2008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미추홀도서관은 신축·이전과 동시에 그 규모가 커지긴 했으나 타 지역의 지역대표도서관과 비교할 때, 예산, 인적자원, 소장자료, 이용자수 등 주요 지표 전반에 걸쳐 제주한라도서관을 제외한 부산시민도서관과 대전한밭도서관에 크게 뒤져 있다. 조직 역시 부산시민도서관이 관장 직속으로 도서관정책부를 두고 있고, 대전한밭도서관은 3개과 중 1개과를 자료정책과로 운영하여 도서관정책을 담당하게 하고 있으나, 미추홀도서관은 문헌정보과와 운영과 2개과로 운영하며, 그 중 운영과내에 도서관정책팀을 두고 있다.

61) 2008년 전국 공사립 공공도서관 644개관의 1관당 자료구입예산은 평균 8,750만원 정도임(한국도서관협회 편, 전게서, p.49).

62) 2008년 현재 전국 644개 공공도서관의 1관당 평균장서수는 90,563책임(한국도서관협회 편, 전게서, p.47).

63)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

지역대표도서관에 대의 협력 및 지역도서관정책을 담당해야 할 조직을 신설하여 단위도서관 업무는 독립된 광역시 도서관정책과 도서관협력의 중앙관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 예산, 인적 자원 등 기본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 운영주체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 교육청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협력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운영주체간 도서관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상호협력을 추진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도서관법」과 「인천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가 도서관정책의 심의 기능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책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3) 운영주체의 다원화 극복 및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는 시, 군, 구, 시 교육청, 위탁기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최근 지역대표관이 미추홀도서관으로 변경되고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 신축됨에 따라 상호협력의 중심기구 및 범위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소속청이 다른 공공도서관간의 협조와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 발전 및 상호협력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그 동안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쌓아온 기반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동안 소외되어 오거나 최근 신축된 군·구립 도서관의 참여를 위하여 운영주체를 넘어선 협조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절실하다.

(4) 거점도서관의 지정·운영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은 그 규모면에서 크게 2개군으로 구분된다. 즉 예산, 직원, 시설, 연혁면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비교적 규모가 큰 도서관 9개관과 2000년 이후 설립되어 비교적 규모가 작은 17개의 시·군·구립도서관으로 나누어진다. 규모가 큰 9개관 중 미추홀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나머지 8개관은 교육청 운영 도서관으로 각 구에 분산되어 있으며, 비교적 연혁이 길고, 오랫동안 지역거점도서관으로서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왔으며, 도서관 인프라, 운영 노하우, 상호협력 등에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선도해온 도서관들이다. 따라서 이들 8개 교육청운영도서관을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협력서비스의 군·구 거점 도서관으로 지정하고, 현재 거점도서관 역할을 할만한 도서관이 없는 강화군, 옹진군, 중구에는 기존 도서관을 확충하거나 신설하여 각 군·구별로 거점도서관을 지정하여 군·구 도서관협력업무의 중심관 역할을 부여하고, 단위 도서관 및 신설 도서관의 운영 및 협력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 특성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공공도서관 특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정 『도서관법』은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시키고,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장을 추가하는 등 특수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공공도서관에 통합하였다. 인천광역시는 특수계층을 위한 도서관이 장애인도서관과 교도소도서관 각각 1개관에 불과하므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등록장애인수 및 60세 이상 인구가 옹진군, 강화군, 중구, 동구의 공공도서관을 장애인서비스 및 노인서비스로 특성화하고, 외국인 비율이 높은 중구, 남동구, 서구의 공공도서관을 다문화 서비스로 특성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6) 기존의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의 개선 및 확대

- ① 도서관 정보화 및 소장목록 DB 구축: 협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백령도서관의 자료관리시스템을 KOLAS로 변환하여 소프트웨어를 단일화하고, 지역내 전 공공도서관이 단행본과 비도서자료 위주로 구축된 소장목록 DB를 연속간행물, 고서, 향토자료 및 기타 자료에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 ② 분담수서: 1993년 혹은 2004년부터 분담수서를 실시해 왔으나 류별 장서수나 장서구성 비율을 살펴 볼 때, 타 도서관에 비하여 장서가 현저히 특성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⁶⁴⁾ 분담수서의 취지를 살리고 자원공유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서평가와 이용자 활용도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그 동안 시행해온 분담수서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분담수서 분야를 각 지역 및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재조정하고, 분담수서예산도 도서관 예산 규모 및 출판량을 고려하여 최소, 최대치를 주어 탄력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주제별 분담 및 단행본 위주의 분담에서 탈피하여 전자자료의 공동구입 및 분담구입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도서관기준의 기본장서수 3만권에 미달되는 도서관은 일정기간 분담수서 계획에서 제외하여 기본장서 확보에 충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담수서가 분담목록, 상호대차, 통합대출 등과 일련의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③ 상호대차 및 통합대출: 미추홀도서관이 2010년 5월 작성한 『공공도서관 통합대출서비스 체계구축 계획』에 의하면 지역내 공공도서관 통합목록DB 및 회원통합DB 를 구축하여 통합대출반납서비스를 실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표도서관이 지역내 도서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통합하는 통합중앙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시스템형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64) 분담수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단순하나마 분담수서에 참여한 8개 교육청 운영도서관 장서의 류별 현황을 비교하여 보았다. 산술적인 비교에서는 도서관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장서수와 비율 모두 분담주제장서를 타도서관에 비해 다소라도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어학분야의 서구도서관 뿐이었다.

있다.

이 사업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분산형 통합검색방식으로 통합대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도서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통합대출서버의 이중 운영 문제, 현재까지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던 통합대출관련 자료제공 문제 등에 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개관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을 고려한 설계가 요구된다.

- ④ 공동보존: 공동보존서고 없이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보존서고의 수용율도 한계에 와 있어 별도의 공동보존서고 및 관리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공동보존소 건립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오랜 숙원으로 공동보존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대표관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6개관이 1993년부터 실시해온 신문분담제본 역시 각 도서관의 장서공간 확보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으나 더 이상 보존공간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신문기사의 원문DB가 제작되고 신문사별 웹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고려하여 신문 제본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⑤ 작은도서관 및 병영, 병원도서관에 대한 지원: 인천광역시의 군·구 중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섬이 많고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타지역에 비해 작은도서관 및 문고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나 인천광역시 전체 183개 문고 중 이 지역의 문고수는 19개에 불과하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은 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들 지역에 작은도서관 설립, 순회문고 운영 등의 지원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작은도서관 지원을 순회문고 중심에서 탈피하여 군·구별 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제공, 자료정리 지원, 디지털서비스 지원, 도서관운영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으로 작은도서관의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⑥ 지역 공공도서관간 협력: 공공도서관 상호간의 업무협력 등을 목적으로 2009년 결성된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두고 회원기관으로 미추홀도서관과 평생교육관, 10개 군·구의 도서관담당부서, 8개 교육청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공공도서관 협력기구로서 향후 하위조직을 구성하고 회원기관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각 운영체제별 도서관정책 담당부서로 구성된 하위기구를 조직함으로써 각 운영기관 도서관정책의 상호 연계 및 종합적인 협력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도서관 상호협력의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회원기관의 범위를 넓혀 인천광역시 단위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서관정책 추진 및 상호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도서관법의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국 및 지역 단위의 공공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공공도서관의 확충 및 도서관 상호협력사업이 주력사업으로 포함되고, 그를 기초로 한 광역자치단체별 도서관 발전계획 및 추진사업계획 역시 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과 상호협력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망 사업과 전국 공공도서관의 상호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범위의 확대라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상호협력업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상호협력업무의 개선 방안으로는 ① 상호협력의 기반으로 단위공공도서관의 수를 확충하고 장서,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를 강화할 것, ② 타지역 대표도서관에 비하여 예산, 인적자원, 소장자료, 조직 등에서 저조한 미추홀도서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외 협력 및 지역도서관정책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할 것이며, 다원화되어 있는 운영주체간 도서관정책을 연계·조정할 상호협력 추진기구를 설치할 것, ③ 운영주체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 해소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④ 거점도서관의 지정 운영, 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공공도서관 특성화의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하여 ① 백령도서관의 자료관리시스템 변환,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연속간행물, 고서, 향토자료 및 기타자료의 소장목록DB 구축, ② 장서 평가 및 이용자 활용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동안 시행해온 분담수서정책을 점검하고 분담수서가 분담목록, 상호대차, 통합대출 등과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재조정할 것, ③ 현재 분산형 통합검색 방식으로 통합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중앙도서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통합시스템형 통합대출서비스 체계 구축, ④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소 설립 및 인력 확보, ⑤ 순회문고 중심의 작은도서관 지원에서 탈피하여 자료제공, 자료정리, 디지털서비스, 도서관 운영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으로 작은 도서관 서비스의 활성화, ⑥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협의회』의 회원기관 확대 및 각 운영체제별 도서관 정책 담당부서로 구성된 하위기구와 협력 분야별 분과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 협력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다관중간의 협력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 군, 구, 시 교육청, 위탁기관 등 운영체제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와 지역 공공도서관의 통합목록DB를 구축함에 있어 『국가자료공동목록』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